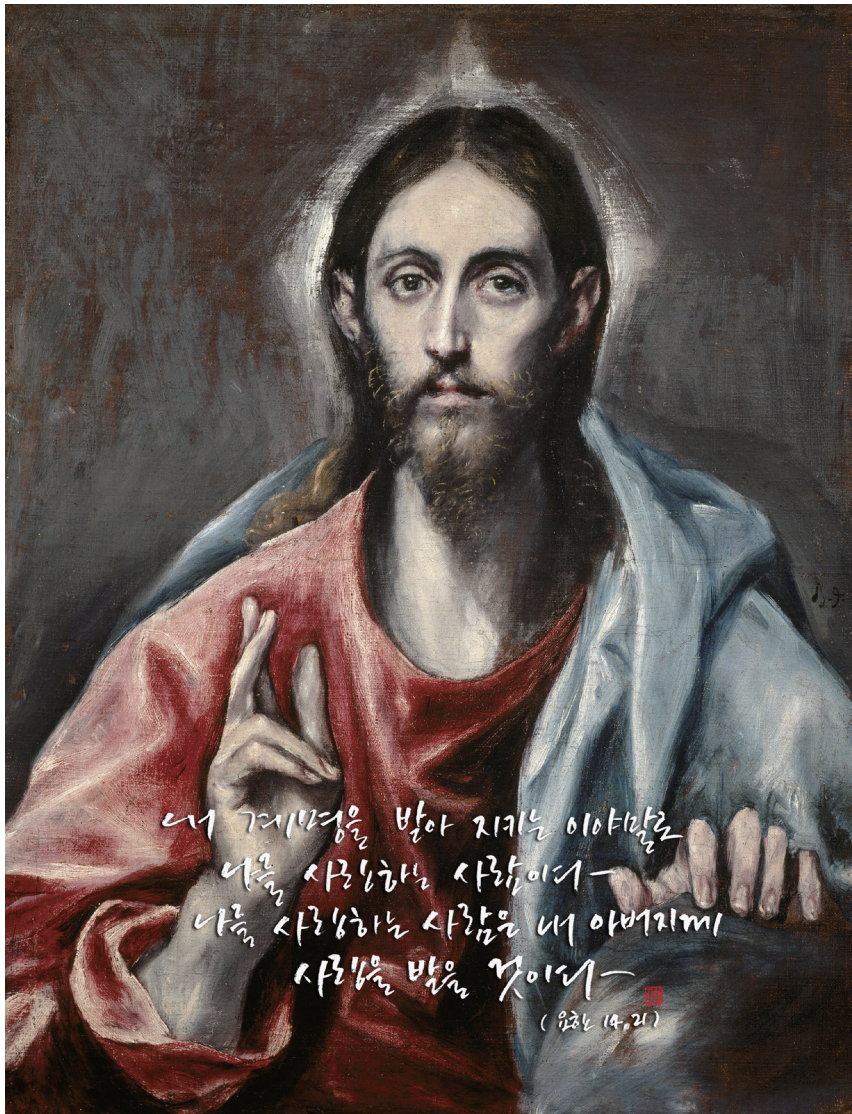


대구주보

부활 제6주일
2020. 05. 17. (가해) 제2214호



『그리스도의 축복』, 엘 그레코, 1600년,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김천황금본당 주임 | 박병래 안토니오 신부

“교회에는 호교론자보다 증거자가 더 필요합니다.”(교황 비오 12세)

전임 신부님께서 집무실 벽에 붙여놓은 문구입니다. 말하기보다 직접 삶으로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말하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요한 14,15)

“내 계명들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요한 14,21) (200주년 기념 성경)

사람들은 ‘계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명’을 ‘인생사용지침’ 정도로만 생각하면 계명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라는 좀 똥똥 지같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계명이 덜 무겁게 느껴져, ‘가벼워지면 들고 다니기가 좀 수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도 많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 또 야생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들은 입가가 빨갈 때가 많습니다. 금방 식사를 했다는 표시지요. 새들이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늘 경계를 하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딱새는 작지만 모양도 예쁘고 지저귀는 소리도 농부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인가 주위에 둥지를 틀고, 사람들과 좀 친근한 텃새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암수 두 마리가 함께 다니는데 한 마리만 있는 딱새를 보면 애뜻한 마음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나침판, 삶의 지침이 ‘계명’이고,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을 사는 노력일진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또 새로이 노력해야겠지요.

‘오뎅이’는 넘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는 게, 만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약해 넘어지고, 잘못이 아파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오뎅이로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인데, 우리를 위해 삶과 피를 내놓으시고,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우직하게, 오뎅이같이 또 살 수 있기를 염치 불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옆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에 작별을 고하며 남긴 것입니다. 이 우주 사진에는 희미하고 작디작은 ‘점’ 하나가 보이는데, 그 정체는 바로 ‘지구’입니다. 사진에 담긴 우리네 세상은 그저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지요. 이 사진 촬영을 제안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사진 속 점 보다 작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첨단과 학시대에 미세한 바이러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던 것이 허망한 자만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구 생태계가 던지는 경고 메시지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은 무한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건전한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한계선을 벗어나서도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결국 사회와 환경에 해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느님 창조 세계 안에서의 겸손 곧 ‘생태적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탁월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뛰어난 수확자일지는 몰라도 수영에 관해서는 물고기가, 날아다니는 능력은 새들이, 산소를 생산하는 일에서는 나무가 챔피언이지요. 다른 존재들이 인간 없이도 수천만 년을 살아온 데 반해, 인간은 많은 부분을 다른 생물종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들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단순히 지구 행성의 수많은 생물종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만 한 것일까요? 인간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역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말하는 “올바른 인간학”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준**

‘우리들’의 원목실

전인병원장 |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미국 뉴저지교구 성안토니오병원 1층 현관 바로 옆에는 소성당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목실과 성당을 쉽게 드나들며, 병원의 설립과 지향하는 바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가톨릭교회 병원의 뿌리인 원목실과 소성당은 병마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혼돈스러운 분위기를 벗어나 고요히 머물며 기도와 미사가 절실할 때 찾는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기대어 위로와 용기를 구하는 영적인 응급실과 같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원목 사제나 수도자들에게서 받는 희망 어린 격려는 투병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저 복도에서 눈인사만 나누어도 환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치유의 은총은 원목실과 소성당에서 샘솟아 병원 곳곳으로 흘러나갑니다.

교회는 인간이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나 십자가상 예수님을 떠올리며 애덕의 정신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치유의 해를 맞아 하느님께서 환자들에게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도록 교구 산하 병원들은 원목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병원은 올해 들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들과 원목 사제가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염관리뿐만 아니라 환자 치유를 위해 원목 사제도 의료팀과 능동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멋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다행이당’ 치유 프로그램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목실의 새로운 시도가 치유의 ‘샘물을 마셔라’ 하신 성모님의 말씀대로 환자와 직원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자와 병원 구성원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원목실로 친근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 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신다.”(집회 34,20) 



박상근 마티아 (1837~1867년)

박상근 마티아는 경상도 문경에서 아전(하급 관리)을 지낸 사람으로, 중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또 관청에 있었으므로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마티아는 평소에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곤 하였다. 이후 그는 칼래(N. Calais, 姜)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마티아는 3월 중순경 좁쌀을 사기 위해 칼래 신부가 숨어 있던 한실(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로 갔다. 그런 다음 칼래 신부와 함께 문경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숨겨 주었다.

3일 후 마티아는 칼래 신부와 둘이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위해 다시 한실로 가야만 하였다. 이때 칼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이 보이는 산에 오른 뒤 마티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티아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신부님 곁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 습격을 당했다면 신부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하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결국 칼래 신부의 명에 순종하여 그와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던 박상근 마티아는, 얼마 후 숙모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천주교를 봉행한다.”라고 명백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으며,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상주 옥에는 문경 인근에서 끌려온 교우들이 많이 있었다. 마티아는 형벌을 받고 옥으로 돌아간 후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권면하였고, 많은 교우들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티아는 마침내 관장의 명에 따라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티아는 성호를 긋고는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순교 후에는 그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사도 8,5-8.14-17	제 2 독 서	1베드 3,15-18	복 음	요한 14,15-21
화 답 송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성모당 미니어처(모형) 판매 (300개 한정)

교구의 상징이자 성지인 성모당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교황님께서 5월 성모 성월을 맞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성모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청하신 만큼 각 가정에 성모당을 모시고 성모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 ▶ 개별 수작업으로 제작된 성모당 미니어처(모형)로 300개 한정 판매합니다.
- ▶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 채색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색상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 ▶ 교구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비록 작은 모형이기는 하나 시·공간상 직접 자주 참배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 자주 전구를 청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하는 복된 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인사말 중에서 —

규 격 | 2,300mm(정면)×1,750mm(높이)×1,200mm(측면)

재 질 | 폴리에스터 수지, 친환경(인증) 페인트

판 매 가 | 80,000원(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미사 안내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3일(토) 11:00 순례자성당

성소 | 피정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문의

대상: 40세 미만 미혼

문의: (0507)1306-1505

<http://isvdb.creatorlink.net>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5월 피정은 쉽니다.

6.17(수) 13:00~16:00

장소: 삼덕성당

지도: 강 요셉 신부 / 문의: 422-6691

시니어 피정(정원 10명)

일시: 5.26(화) 14:00~27(수) 16:00

장소: 효령하늘집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
힘들고 지친 이들을 다독여 주는
온 가족 힐링 영화

『저 산 너머』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마음발 특별한 씨앗을 키워간 꿈 많은 7살 소년 수환의 이야기를 그린 힐링 무비. 종교를 초월해 모두의 사랑을 받은 시대의 진정한 어른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첫 극영화로 '오세암'의 정채봉 동화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해 많은 감동을 전합니다.

상영관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 및 상영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인혜택 : 주보 지참 시 CGV는 1인당 7,000원에 관람,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3,000원 할인을 드립니다. (현장 구매에 한함)
단체관람 :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에는 1인당 6,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하실 경우 상영관과 상영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문의: 각 상영관 고객센터)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정기&정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말레나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검진 (5대암)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순우 (요엘)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행사 | 모임

5월 예비신학생 모임(고3·대학일반)

일시: 5.24(일)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주교좌 계산성당 견진성사

일시: 5.31(일) 14:00 대주교님 집전

교리: 주말반 5.16, 5.23, 5.30

평일반 5.27~5.30

신청: 계산성당, 254-2300

타본당 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5.18(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2780-4535

한국평협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

일시: 6.1(월)~7.10(금) 40일간

내용: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전체 1~3등, 교구별 1등, 특별상 시상)

모바일앱 '가톨릭'에서 참여

http://www.clak.or.kr 또는 가톨릭앱

교육 | 모집 | 기타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발성법, 유화, 수채화

반주 수업: 기초반_평일미사 반주

취미반_가요, 생활 성가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인근)

문의: (070)4266-004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 신·구약 (수) 10:00, 19:30

심화: 성문서 (월) 10:00, 19:30

(일반과정 이수하신 분에 한함)

주소: 경산시 남매로 205(임당역 근처)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용평마을 양로원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65세 이상 활동 가능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위치: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7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6.5~7 / 6.16~18 / 7.28~30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제56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이번 여름 연수는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채용 | 안내

다사성당 관리업무 계약직 채용

자격: 고졸 이상, PC가능(60세 이하)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문의: 다사성당, 587-7300

가천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 1종 면허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채용시까지

문의: 본당사무실, (054)932-4026

AD(Agnus Dei) 대학생 센터 안내

경산지역 대학생 활동과 신앙생활 지원

(카페AD, 스터디룸, 강좌 개설 등)

대학생 미사: 주일 17:00

장소: 압량대학생거점성당

문의: 담당 수녀, (010)5202-5885

바오로딸(동성로)서원 임시 이전 안내

관심과 정성어린 후원에 힘입어

바오로딸(동성로)서원이 개축을

위해 휴점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범어동 서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문의: 744-5185 / 425-5185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대 아오스명,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원룸, 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선 우(마리아)
♥ 교도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자점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논협방향 20m)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